

필봉마을굿 축제 개막

임실군, '위대한 유산' 주제 무형유산 초청공연·경연대회·체험교육 등 마련

전라북도 대표공연예술제인 2023년 제28회 필봉마을굿축제가 17일부터 20일까지 임실필봉문화촌에서 '위대한 유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필봉마을굿 축제는 인류무형유산이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민족의 흥과 열, 신명을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17일 풍물굿의 역사와 담론이라는 주제로 희슬세미나, 산신제로 축제의 막을 열며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는 18일부터 무형유산 초청공연, 제주 민속보존회 초청공연, 창작연희극, 필



봉아루 달굿, 전국 전통 연희경연대회, 이동극, 기획 전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무형유산 초청공연에서는 임실필봉 농악을 비롯해 이리농악, 진주심천포 농악, 고성오광대, 송파산대놀이, 원주 매지농악, 남도돌노래, 출꾼 이의태, 진도씻김굿, 판소리 등 다양한 국가무

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중국 조선족문화관 조선족예술단의 해외 초청공연과 짧은 국악밴드 '악단광철'의 공연작이 폐막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판소리 탈춤, 농악, 전통 기악을 주제로 구성한 편레이 무형유산콘서트, 2023 당산봉월의 특별한 선택 공연을 진행해 축제의 열기를 한껏 뜯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깊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전통연희대인들이 경연대회와 전국양순용배 풍물굿 경연대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풍성한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발전·현안문제 해소 위해 기재부 방문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역발전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에 빌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6일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이날 면담은 미무리 단계에 접어든 기재부 심의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원시의 중점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종력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최 시장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총사업비 250억원)'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 이는 남원시가 세계 최고 권위의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을 유치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드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티대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드론 전시와 체험, 창업지원 등 의 기능을 갖춘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드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파우 유원지 내 추진하는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과 '남원 게임문화 리카페음 건립(320억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 건의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옻칠 목공예 전시관(150억원)'과 시설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합파우 유원지에 각종 문화예술이 집대성되는 '합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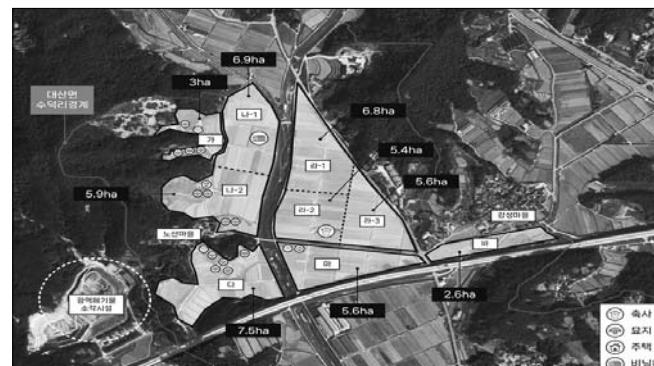
남원 농기센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나서

청년농업인 유입·농촌정착 지원… 대산면 일원에 조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유입 및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도전하며, 사업 대상자를 대산면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스마트팜 창농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적절한 임대료로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해 재배액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4~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사업비 총 200억원)에 도전한다.

시에 따르면, 대산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을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 적자로, 앞서 토지확보 선행을 위해 지난 10일과 13일에 대산면 김성미읍과 노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활용 동의를 마을 주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공

모가 선정되면 부지 5㏊ 이상에 부지 기반조성, 온실, 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천연물을 바이오 소재 산업 등까지 연계되어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놀줄중 증상 확인법 소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겨울철 질환으로 일련된 놀줄중이 여름에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며 놀줄중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무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를 발생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진다.

이때 적절한 수분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이 응고돼 당어리지거나 헬진이 혈관을 막으며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놀줄중은 한 번 발생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물론 회복되더라도 큰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며, 뇌혈관이

막혀도 4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병 후 빠른 이송과 치료가 관건이다.

뇌혈관의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남

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시야 가장자리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둔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포상제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 적치 △파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폐쇄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관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혁장 사건, 통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3분기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임실군은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위기관리대응 연습을 위해 지난 16일 군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군 안전관리과장의 을지연습 개요, 주요일정 보고 및 유관기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내 국지도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 및 원활한 군사작전 지원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관·군·경·소방 등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a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지역 소식통

순창보건의료원,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차이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의치(틀니)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 후 관내 협약된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면, 과거 의료원에서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또는 건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순창=이강원기자

남원의료원,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 조사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17일부터 2023년도 남원지역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 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 사업에 포함된 코호트연구로, 한양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이미 구축된 농촌기반 코호트 인프라를 활용한 노화 심층연구 진행이다.

남원의료원은 남원지역에서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 기반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완료된 인원 중 165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인지 기능·신체계측 및 설문조사, MRI 활영 등의 추적 관찰을 수행하여 인지노화, 질병상태, 사망위험 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박주영 원장은 "농촌기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